

이코노미스트

에코마케팅이 인수한 '안다르'...'자본잠식'에도 흑자 비결은 '내부거래'

기사입력 2021.11.23. 오후 2:42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9 4 요약봇

안다르 2·3분기 흑자 전환...내부거래 늘려 매출액 부풀리기 의혹
늘어나는 내부거래...2분기 40억, 3분기 130억으로 내부거래 비율 48%
에코마케팅 값아먹는 재무구조 '도마 위'...이익구조 개선 목소리도



안다르 베스트셀러 제품. [사진 안다르 홈페이지 캡처]

요가복, 레깅스를 판매하는 애슬레저 브랜드 '안다르'가 온라인 종합 광고대행사 에코마케팅으로 넘어간 지 6개월이 지났다. 김철웅 에코마케팅 대표가 심각한 적자를 기록하며 부실화된 안다르를 어떻게 성장시킬지는 관련업계의 큰 관심사였다. 안다르 사례를 보면 에코마케팅의 경영 전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주인의 반전? 흑자 전환에 깔린 내부거래

에코마케팅을 만난 안다르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인수 직후인 6월 실적 크게 늘더니 3분기엔 첫 분기 흑자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안다르의 3분

이코노미스트 랭킹 뉴스

오후 2시~오후 3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 1 "삼성전자 美반도체 공장, 테일러 시 확장"...20조원 들여 ... 1시간전 
- 2 [속보]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화장실서 쓰러진 채 발견 5시간전 
- 3 "비트코인 대출 나온다"...제도권에 성큼 다가선 암호화폐, ... 8시간전 
- 4 에코마케팅이 인수한 '안다르'...'자본잠식'에도 흑자 비결은 ... 40분전 
- 5 [증시이슈] 중고차 플랫폼 케이카, 골드만삭스 매수 보고서 ... 3시간전 



분야별 주요뉴스




이재명 "학살 전두환 조문 안해" vs 윤석열 "조문 가야지 윤석열, 결국 김종인과 결별하나...막판 극적 합류 여지. 장제원 "한 번도 자리 탐한 적 없다...오늘 윤석열 결 때 '세계 경제 대통령' 파월의 연임 일성..."인플레 잡겠다" 중, 대만 집권당 후원 기업에 벌금..."대만 독립 지지하만

'미래' 밝힌 이재용...美서 '뉴 삼성' 큰 획 그치고 강행군 마 삼성, 파운드리 사업 확대 준비 끝..."이재용의 뉴삼성' 7 '가게 빛' 석 달만에 40조원 가까이 늘었다..."가계대출만 똑똑한 물류클라우드 위한 삼성SDS의 비밀병기 'AI 조 드론택시 상용화 성큼...켄코아, 볼로컴퓨터와 730조 UAN

"사죄 없이 떠난 학살자...역사적 심판 물거품" 광주는 늘 추징금 956억 안 낸 전두환..檢 "집행 가능성 법리검토 사과 없이 떠난 전두환..."518 헬기사격' 형사 재판 종결 랭글러가 끌고 그랜드체로키가 당긴다...지프, 2년만에 영화 '스파이더맨'에 등장한 현대차...어떤 기종 나오나

언론사별 가장 많이 본 뉴스

오후 2시~오후 3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 전두환 씨 향년 90세 사망.."국립묘지 대상 아냐" 
- MBC 
- 김종인 빠진 윤석열 캠프...대선가도 전망은 

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46% 증가한 272억원, 영업이익 역시 27억원 늘어난 11억4000 만원을 기록했다. 연결기준 매출액은 388억6600만원, 영업이익은 14억7200만원이다. 단순 수치만 놓고 보면 적자행진을 거듭하던 안다르가 에코마케팅을 새 주인으로 맞은 뒤 반전에 성공한 모양새다.



김철웅 에코마케팅 대표. [중앙포토]

그러나 이러한 흑자 기초 밑바탕의 상당 부분엔 내부거래가 깔려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에코마케팅이 안다르를 품은 후 6개월 동안 내부거래는 17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2분기 실적이 잡힌 6월 한달간 내부거래액은 약 40억원(내부거래율 34%), 3분기에도 129억 7800 만원이 내부거래로 발생했다. 이 기간 전체 매출에서 내부거래 비중은 48%에 달한다.

사라진 매출채권(외상값)도 내부거래를 통한 처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안다르는 5 월까지 잡혀있던 29억원의 매출채권을 6월을 기점으로 모두 변제했다. 당시는 누적적자가 200억원에 달하고 1분기 영업손실도 24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를 거듭하던 때다.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흐름도 마이너스(-) 50억원에 달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안다 르 스스로 변제 능력이 있었다고 하기엔 한계가 많았던 상황이다.

MBN

[속보] 전두환 전 대통령 별세

조선비즈

항소심 결심 앞두고 사망... "죽음으로 진실 문을 수 없어 ..."

YTN

커피 하루에 2~3잔 마셨더니...우리 몸에 깜짝 변화 [건강 ...]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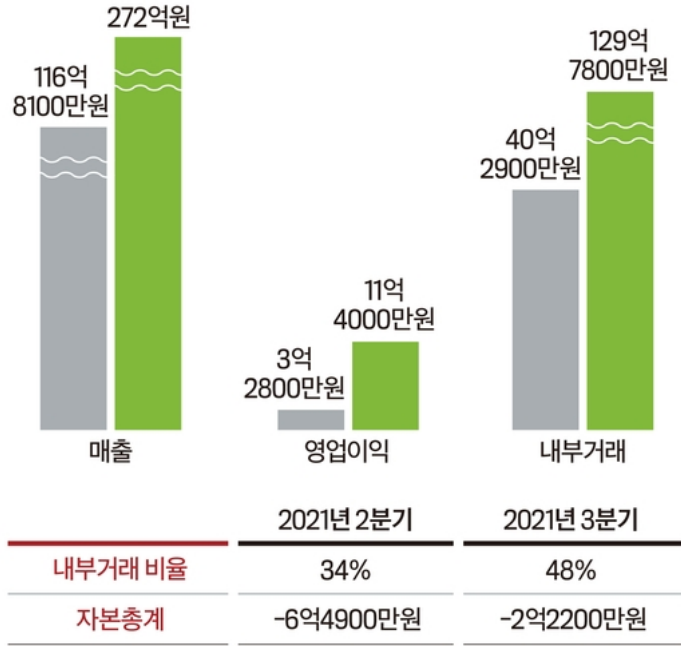
네이버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 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에코마케팅 인수 후 '안다르' 실적 추이

■ 2021년 2분기 ■ 2021년 3분기



※매출·영업이익에 대한 경영성과는 내부거래를 제거하기 전 금액

자료: 금융감독원

이코노미스트

재무 상황도 좋지 않았다. 지난 2분기 안다르의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6억4900만원을 기록해 자본잠식을 벗어나지 못했다. 3분기 역시 마이너스 2억2000만원으로 여전히 자본잠식 상태다. 직원 수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161명이던 직원 수는 올해 11월 기준 79명으로 80% 가까이 줄었다.

내부거래 창구 데일리앤코 유력...채권 크게 늘어

업계에선 안다르의 흑자전환은 데일리앤코 등 유통채널을 보유한 에코마케팅의 효과를 본 것이라고 분석한다. 에코마케팅이 안다르의 상품을 구매한 후 모종의 방식을 통해 처리해 주는 식으로 계열사 지원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내부거래로 매출을 키워주고 30억원 가량의 매출채권을 탕감해주면서 위기에 빠진 계열사를 성장시킨 듯 보인다”며 “적자 회사가 한 달 만에 흑자전환하고 분기 흑자전환이 가능한 상황이 내부거래 증가와 연결지어진다. 데일리앤코 채권이 크게 증가한 걸로 보서는 내부거래도 현금거래가 아닌 외상 매출로 돌렸을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귀띔했다.



에코마케팅 내부거래 현황

분기	구분	총매출액	내부거래
2분기	광고대행서비스부분	236억3300만원	14억2700만원
	의류제조 및 판매부문	116억8100만원	-40억2900만원
	비디오커머스 사업부문	740억1900만원	-2900만원
3분기	광고대행서비스부분	339억1800만원	48억6000만원
	의류제조 및 판매부문	388억6600만원	-129억7800만원
	비디오커머스 사업부문	1138억5500만원	-6900만원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이코노미스트

내부 거래를 제거하고 보면 안다르가 에코마케팅 품에 안긴 후 실적이 썩 나아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안다르 매출은 759억원. 에코마케팅의 4분기 안다르 매출목표 400억원이 이뤄져도 연매출은 1000억원 남짓이다. 이 매출에 내부거래를 제거하면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올해 연이어 터진 성추행, 갑질 등 부정이슈 논란에 매출이 더 악화됐을 가능성도 있다.

안다르 관계자는 내부거래에 의존한 매출증대와 재무구조에 대해 “안다르는 마케팅 계약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면서 “회계처리 역시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 (문제 될 게 없다)”라고 해명했다.

에코마케팅 등기임원이자 마케팅업무 담당이사는 “2분기 40억, 3분기 130억원 가량의 내부거래액은 안다르에 비용이 더해진 것이 아닌 안다르가 에코마케팅에 마케팅 수수료를 비용으로 지불한 것을 의미한다”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내놨다. 문 이사는 또 “이는 매출액 증가와 연관이 없고 에코마케팅에 지불한 마케팅 비용이 효과를 나타내 매출액 증진과 흑자전환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회계 전문가들은 담당이사의 발언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A회계사는 “에코마케팅의 주장대로 안다르가 마케팅 부문에 대해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면 광고대행서비스부분 매출로 잡혀야 하는데, 의류제조 및 판매부문 지출로 잡혀있어 수궁하기가 힘들다”면서 “안다르 외엔 의류 종속 기업이 없다면 당연히 안다르에 몰아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기업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B회계사는 “에코마케팅의 의류제조 및 판매부문 총 매출액과 안다르 3분기 누적 매출액이 388억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서는 내부거래 129억원은 안다르 매출로 봐야한다”면서 “내부거래 부분에서 총 매출액이 같다는 건 다른 곳에 빠져나간 매출액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기업공시 분석 전문가인 C회사 대표도 “재무재표만 놓고 보면 안다르가 올린 매출 388억원 중 일부가 에코마케팅으로 갔고 외부에 판매하지 못하고 남아있어 매출로 인식될 수 없는 내부거래가 129억이란 얘기”라면서 “마케팅 수수료는 직업수수료로, 판관비 항목에 비용항목에 들어갈 부분이지 매출차감액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에코마케팅 후광 언제까지... 자생력 높여야

업계에선 이런 식의 돌려막기식 재무구조로는 에코마케팅의 후광 효과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안다르 스스로 자생력을 높여야 하는데 전문매장과 플랫폼 등 입점판매에 의존하는 안다르의 판매 구조상 이익을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안다르 주 매출처였던 입점판매 방식은 백화점 전문 매장으로 입점하거나 쿠팡, 네이버, 위메프 등 플랫폼에 입점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식은 브랜드 점유율과 매출을 늘리기엔 좋은 방안이지만 높은 수수료를 때문에 마진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마진율을 높



이기 위해선 때때로 소비자 가격을 높여야 하는 기로에 서기도 하는 셈이다.



안다르 레깅스 광고. [사진 안다르]

안다르 역시 이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입점판매 중심 구조에서 생산자 직접판매(D2C) 비중을 확대하면서 이익구조를 개선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업계에선 D2C 중심으로 바뀌고 실질적인 매출적인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안다르가 돈을 벌어오는 자회사로 변모했고 매출성장 역시 뚜렷해 보이지만 스스로 성장했다기보다는 에코마케팅 자금 투입의 결과로 워혀진다”면서 “에코마케팅 측에서도 안다르 흑자전환 성적표를 만드는 데 많은 힘을 쏟았기 때문에 4분기 성과가 나오면 '안다르 살리기'에 투입된 힘을 조금씩 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 역시 내부거래를 통한 회사의 성장은 건강하지 않은 행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용구 숙명여대(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아닌 내부거래를 늘리는 방법이 불법은 아니지만 ESG 경영 잣대로 보면 매우 건강하지 않은 방식”이라면서 “이제는 재무적 성과 뿐 아니라 ESG적으로 기업을 바라봐야하는데, 이 경우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는 G(거버넌스), 즉 투명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경제학과) 교수는 “적자 보는 기업을 인수해서 흑자를 만들고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건강한 관계일 수 있지만, 문제가 있는 기업을 인수해서 표면상으로 내부적 지원을 통해 포장을 한 것이라면 문제가 많다”면서 “상장사일 경우 주가 상승 등의 여파가 있었다면 결국 개인투자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김설아 기자 kim.seolah@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 김설아 기자 > 구독

구독자 440 응원수 499

먹고, 마시고, 즐기는 '생활경제팀' 김설아 기자입니다. 업계 소식을 깊게 고민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단독] '윤전기사 갑질' 안다르 신애련 남편, 사임했다더니...슬그머니 출근중
7년 만에 '교촌'이 총대 댔다...국민간식 치킨 '도미노 인상'되나

Copyright © 이코노미스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이코노미스트를 구독해주세요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좋아요 0 혼흔해요 0 슬퍼요 0 화나요 7 후속기사 원해요 2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2

이코노미스트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美반도체 공장, 테일러시 확장"...20조원 들여 ... 반려견과 함께 커피를?... '위드 코로나' 외출 재개에 특화 ...
 "역대 최고 매출 찍더니"...bhc 품에 안긴 아웃백, 1년 만에... [증시이슈] 중고차 플랫폼 케이카, 골드만삭스 매수 보고...
 한국조선해양, LNG추진 컨테이너선 10척 수주...7456억...

인쇄 스크랩 이코노미스트 기사제공 이코노미스트 기사목록

이 기사의 댓글 정책은 **이코노미스트**가 결정합니다. ○


4개의 댓글 내 댓글

현재 댓글 4 작성자 삭제 0 규정 미준수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순공감순 **최신순** 공감비율순

클린봇이 악성댓글을 감지합니다. 설정

 **semb******
 2021.11.23. 15:17:50
 기자님 161명에서 79명 되면 절반 줄었는데 50퍼 줄어든거 아닌가요? 80퍼 줄었으면 32명 남아야 해요. ㅎㅎㅎ
 댓글 작성 1 0

 **jeff******
 2021.11.23. 15:02:01
 이 기사분 참 끈질기네 ㅋㅋㅋ 웃고 갑니다
 댓글 작성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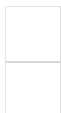
 **zone******
 2021.11.23. 14:56:02
 또 이 기사네ㅋㅋ 대단하다
 댓글 작성 6 1

 **ralp******
 2021.11.23. 14:52:50
 화색 레깅스... 지린거 같아요.
 댓글 1 1 0

[댓글 더보기](#)

경제 속보 기사목록 전체보기

"영농태양광 발전사업법'은 농민에 발전수의 돌려주는 것"
 한국조선해양, LNG 추진 컨테이너선 10척 수주..7457억 원
 에코마케팅이 인수한 '안다르'...'자본잠식'에도 흑자 비결은 '내부거래'



제1회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위원 위촉

언론사 목록 분야별 목록

마이크로

이용약관 | 서비스 안내 | 기사배열 원칙 책임자: 유봉석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이희만 | 개인정보처리방침 |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 뉴스 고객센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제공처 또는 네이버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이코노미스트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NAVER Corp. All Rights Reserved.

